



LG전자는 유럽에서 LG 올레드 TV로 각종 평가 1위를 휩쓸었다.

/LG전자

## LG 올레드TV, 유럽서 '최고 TV' 휩쓸어

영서 '올해의 최고 TV' 수상  
佛·獨 등서도 화질·성능 호평

LG 올레드 TV가 유럽에서 성능 평가 1위를 휩쓸었다.

LG전자는 최근 영국에서 열린 'TV 비교 평가'에서 최고상인 '올해의 최고 TV'를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리뷰 전문가 40여명에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받은 결과다. 삼성전자와 소니, 파나소닉 등 TV와 맞붙어 블랙 구현과 색표현력, 게임 성능 등에서 호평 받았다.

LG 올레드 TV는 이에 힘입어 '최고 HDR TV'와 '최고 게이밍 TV'로도 뽑혔다. 영국 소비자잡지 '위치'에서도 TV 성능평가 1위로 LG 올레드 TV를 선

정했다.

프랑스 슈아지르와 네덜란드 콘슈멘텐본트도 LG 올레드 TV를 지금까지 테스트한 TV 중 최고라고 극찬하며, 단점이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독일 품질 테스트 기관 '슈티프퉁 바렌테스트' 발행잡지 '테스트'도 화질과 사운드에서 올레드 TV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스웨덴 소비자잡지 라드앤론은 LG 올레드TV 화질과 음질에서 스마트기능 등을 들어 1위로 선정했다.

그밖에 스페인과 이탈리아, 포르투갈, 벨기에, 체코 등 현지 소비자 잡지도 LG 올레드 TV를 평가 결과 1위라고 발표했다.

/김재용 기자

## 쌍용차, 추석 황금연휴 시승단 100팀 모집

코란도·티볼리·렉스턴 스포츠 칸  
3개 인기차종 대상 총 50대 제공

쌍용자동차는 올 한가위는 물론 10월 황금연휴에 새로 선보인 코란도 가솔린을 비롯한 주요 모델을 체험할 수 있는 시승단 100팀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쌍용자동차에 따르면 시승단이 체험하게 될 모델은 가장 인기 있는 3개 차종으로 올해 선보인 신모델이다.

시승단 모집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추첨을 통해 ▲코란도 25대 ▲티볼리 15대 ▲렉스턴 스포츠 칸 10대 등 총 50대를 제공하며 각각 9월 11~16일, 10월 2~7일 기간 동안 신차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당첨된 시승단 전원에게 주유상품권(5만원)을 지급한다.



티볼리/쌍용자동차

한가위 시승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10월 황금연휴 시승 신청은 다음달 22일까지 할 수 있다. 추첨 결과는 각각 9월 4일과 25일 발표하고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시승단 참가 고객이 코란도 신차를 구매(오는 10월 말까지 출고 기준)할 경우 10만원 특별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정연우 기자

## 태블릿으로 무대 비추면 배우들이 등장

ETRI, 시그라프서 'AR 뮤지컬' 공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증강현실(AR)로 뮤지컬을 만들어냈다.

ETRI는 지난달 28일부터 5일동안 미국 LA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시그라프'에서 'AR 뮤지컬'을 선보였다고 21일 밝혔다.

뮤지컬에는 ETRI가 개발한 'AR 공간 생성 및 위치 추정 기술'과 'AR 인터랙션 기술'에 공동 연구기관 토즈의 애니메이션이 접목됐다.

뮤지컬은 특수 제작한 무대와 태블릿 PC로 진행됐다. 태블릿으로 무대를 비추면 배우들이 증강현실로 등장하는 방식이다. ETRI는 알고리즘을 최적화



AR 뮤지컬 모습.

/ETRI

해 추후 민간 업체에 기술을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ETRI 정성욱 박사는 "이번 전시회를 발판으로 AR 기술을 고도화하고, 협력기관을 늘려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AR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 두산인프라코어, 印尼 국영 BBI社와 MOU

# 동남아 엔진시장 거점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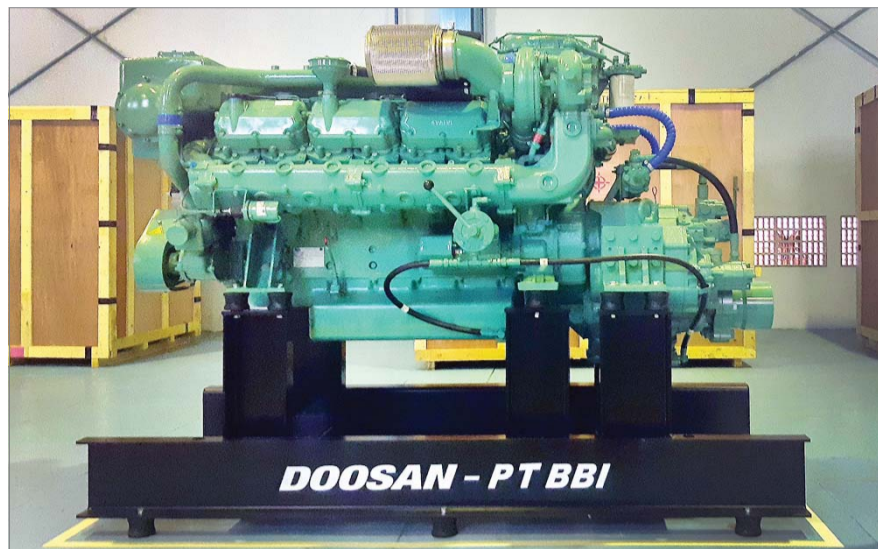
13년간 부분·완전조립 등 협력  
동남아 신흥시장 공략 가속화

두산인프라코어가 인도네시아 국영 엔진생산 기업인 BBI와 손잡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엔진 신흥시장 공략을 위한 거점을 확보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1일 인도네시아 자바 북동부의 항구도시 수라바야에서 요욕 하디 사트리요노 BBI 최고경영자(CEO)와 두산인프라코어 엔진BG 유준호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엔진 생산·영업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8월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국영 엔진 생산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의 하나로 BBI와 디젤엔진을 현지에서 생산하기 위한 양해각서(MOU)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양사는 앞으로 13년 동안 엔진의 단순·부분조립, 완전조립 등의 단계를 거쳐 BBI의 엔진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동남아시아 엔진 시장도 함께 공략할 계획이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인도네시아 국영 엔진생산 기업 BBI와 함께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할 선박용 엔진 DV22 모델.

/두산인프라코어

BBI는 연간 최대 1만6000여대를 생산할 수 있는 단순·부분조립 생산공장을 마련했으며 향후 2만5000대까지 규모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공장에서 선박용과 건설기계용, 농기계용, 발전기용 등 인도네시아 주요 엔진 시장에 대응하는 제품들을 생산한다.

인도네시아 엔진 시장은 차량과 산업용 수요를 바탕으로 지난해 5만5000

대에서 2025년에는 7만1000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두산인프라코어 유준호 부사장은 "BBI 공장은 동남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시장 공략의 주요 거점이 될 것"이라며 "시장별 엔진 라인업에 맞춤형 생산 체계를 갖춰 다양한 엔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 삼성, 超프리미엄 전략 통했다... 글로벌 TV '1위'

2분기 TV시장 점유율 31.5%  
75인치 대형제품 54% 점유

삼성전자가 글로벌 TV 시장에서 여전히 압도적인 1위를 이어가고 있었다.

21일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분기에도 TV 시장 점유율 31.5%를 기록했다. 분기별로는 2013년 1분기 이후 최고치다. 상반기 기준으로도 30%를 넘겼다.

2위인 LG전자(16.5%)보다도 2배나 높은 점유율이다. 일본 소니(8.8%)와 중국 TCL(6.3%), 하이센스(6.2%)를 합쳐야 비로소 비슷해진다.

수량 기준으로도 삼성전자 점유율은 19.4%, LG전자(12.4%)와 TCL(9.4%), 하이센스(7.3%), 샤오미



삼성전자가 국내에 2019년형 QLED TV를 출시한다.

/삼성전자

(5.5%)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75인치 이상 대형, 2500달러 이상 고가 제품 등 '프리미엄 TV'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54%에 가까웠다. 소니는 각각 19%, 24.5%에 그쳤다. LG전자 역시 각각 16.2%, 17.8%에 머물렀다.

업계에서는 TV 시장이 사실상 정체 기임에도 삼성전자가 선전을 거듭한데

에는 이같은 '프리미엄 전략'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QLED TV도 올레드 TV를 밀어내는데 성공했다. 2분기 판매대수는 삼성전자가 109만대 등 120만대에 달하면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올레드 TV는 전분기와 같은 61만대에 그쳐 여전히 부진했다.

/김재용 기자 juk@

## LG U+, 5G 스마트 항만사업 개척 나선다

서호전기와 MOU 양해각서 체결  
5G 초저지연 영상전송 기술 기반  
컨테이너 원격조종, 탄력적 운용

LG유플러스가 스마트 항만 사업에도 진출한다.

LG유플러스는 21일 LG유플러스 용산 사옥에서 서호전기와 '5G 스마트 항만' 사업 관련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항만은 크레인 원격제어 시스템으로 컨테이너 운영 효율을 극대화 시킨 항만 운영 체제를 뜻한다. 5G 초저지연 영상전송 기술 기반으로 컨



LG유플러스는 서호전기와 손잡고 스마트 항만 사업을 시작한다.

/LG유플러스

테이너 원격 조종해 시간대별 탄력적 크레인 운용을 할 수 있다. 사람이 야적장까지 이동할 필요가 없어 안전사고 문제도 예방한다.

양사는 앞으로 실무협의단 구성과 운영 등 세부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5G 통신망 활용 확대와 B2B 원격제어 기술 고도화 및 신규 서비스 발굴을, 서호전기는 차세대 크레인 자동화 시스템 제공 등을 기대했다.

LG유플러스 서재용 기업5G사업담당 상무는 "5G 통신 서비스와 항만 크레인 자동화 솔루션에 전문성을 지닌 양사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스마트 항만 사업 모델을 기획했다"라며 "세계 최초로 5G 상용망에서 운영되는 항만 시스템 만큼 사업의 양적·질적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용 기자